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수산연구본부 수산물수급정보센터	성명	조국훈	직급	전문연구원	
				강효녕		부연구위원	
				박진선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조국훈(수산업관측사업) - 강효녕, 박진선(정부지원사업)						
출장기간	2026. 07. 06.(월)~2026. 07. 17.(금) (11박 12일)			출장지	노르웨이·페로제도·영국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비고	
	7.6(월)	부산(08:00)→인천(09:10)		항공 이동		KL9847 KL 200 KL1171	
		인천(11:55)→암스테르담(18:55)					
		암스테르담(21:10)→베르겐(22:50)					
	7.7(화)	오전	베르겐(07:00)→오슬로(07:55)		항공 이동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쿼터 동향 및 한-노르웨이 수산 협력 방안 협의		
		오후	오슬로(13:20)→베르겐(14:15)		항공 이동		
			Pelagia (본사)		◦ 고등어 품질관리 체계 및 대(對)한국 공급 구조 조사		
	7.8(수)	오전	베르겐(11:00)→올레순(11:50)		항공 이동		WF0454
		오후	Sperre (본사, 가공공장)		◦ 생산·가공 역량 및 자원·쿼터 동향 조사 ◦ 대한민국 고등어 공급 안정화 정책 면담		
	7.9(목)	오전	Global Fish (본사)		◦ 생산·가공 역량 및 자원·쿼터 동향 조사 ◦ 대한민국 고등어 공급 안정화 정책 면담		
	7.10(금)	오전	Sperre (가공공장)		◦ 펠라직 가공·냉동 시설 현장 시찰		SK2893
		오후	올레순(15:05)→코펜하겐(16:40)		항공 이동		
	7.11(토)	오전	TorvehallerneKBH		◦ 수산물 소매 판매현황 및 상품 구성 조사 ◦ 가공품 유형 및 소비자 정보표시 실태 조사		
		오후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		◦ 노르웨이 방문 결과 공유 및 페로제도 협력 방안 협의		
	7.12(일)	오후	코펜하겐(18:35)→페로제도(19:50)		항공 이동		RC 459
	7.13(월)	오전	페로제도 외무수산부		◦ 거래 확대 및 안정적 공급체계 협력방안 협의		
페로제도 산업회관			◦ 페로제도 산업계 대한민국 협력 수요 조사 ◦ 민간 네트워크 및 기업 간 매칭 방안 협의				

		오후	페로제도 보건에너지부	◦ 수산분야 교류 확대 및 업무협력(MOU) 협의	
			페로제도 언론사(Local.fo)	◦ 한-페로 수산 협력 방향 관련 현지 언론(Local.fo) 인터뷰	
			Pelagos	◦ 고등어 가공·수출 현황 조사 ◦ 한국 및 아시아 시장 수출 전략 파악	
			Bakkafrost	◦ 페로제도 연어 양식·가공 산업 현황 조사 ◦ 대(對)한국 수산물 협력 가능성 협의	
			Varðin Pelagic	◦ 대(對)한국 수출 관세 부담 및 할당관세 예측가능성 협의	
	7.14(화)	오전	페로제도(07:40)→런던(09:55) 런던(13:05)→애버딘(14:45)	항공 이동	RC 416 EZY 857
		오후	Northbay Pelagic (공장)	◦ 수출용 고등어 제품 생산·품질관리 체계 파악	
	7.15(수)	오전	Denholm Seafoods (본사, 가공공장)	◦ 영국 내 고등어 원료 조달 및 가공 현황 조사 ◦ 한국 수출 가능 품목 및 공급 구조 파악	
		오후	Northbay Pelagic (본사)	◦ 영국 냉동·가공시설 운영 현황 및 가공 역량 조사	
	7.16(목)	애버딘(12:55)→암스테르담(15:25) 암스테르담(21:35)→인천(+1 16:25)		귀국 및 출장 종료(기내 1박)	KL 916 KL 855
	7.17(금)	인천(18:25)→부산(19:35)			KL4249
출장성과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노르웨이·페로제도·영국 등 주요 정부기관 및 수산기업 면담을 통해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 동향, 쿼터 협상 및 대한민국 공급 여건 조사 ◦ Sperre, Global Fish, Pelagia, Bakkafrost, Varðin Pelagic, Northbay Pelagic, Denholm Seafoods 등 주요 생산·가공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가공·품질관리 및 공급체계 확인 ◦ 페로제도, 영국 등 정부 및 산업계와 면담을 통해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관세·할당관세 관련 협력방안 논의 ◦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 등과 협의를 통해 북유럽 수산협력 확대 및 국제협력 기반 마련 □출장 주요 성과 ◦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 감소 원인, 연안국 간 쿼터 협상 구조 및 향후 공급 전망에 관한 최신 정보 확보 ◦ 노르웨이·페로제도·영국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관리, 냉동·가공시설 및 대한민국 수출 전략을 확인하여 국가별 공급 특성과 경쟁력을 비교·분석 ◦ 페로제도의 한국시장 진출 의지와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협력 기반 및 정보교류 체계 구축 ◦ 양육요건(경제적 연계조건), IQF 개체급속동결, 저온 연속관리 등 선진 가공·품질관리 사례를 확인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내 고등어 수급 안정과 물가관리를 위한 국제 공급망 정보 및 생산·가격·쿼터 관련 자료 확보				
	향후계획	□출장성과 공유 계획 ◦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 및 국제 공급망 조사 결과를 수산업관측 및 수급전망 기초자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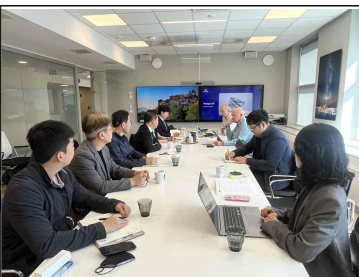
	활용 ◦ 국가별 생산·가공·유통체계와 품질관리 사례를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자료로 활용 ◦ 확보한 국제 공급망 정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정책 수립 지원 □ 정책화 및 연구 활용 계획 ◦ 북대서양 고등어 쿼터 및 공급 동향을 국내 수급예측모형과 소비자물가 분석에 반영 ◦ 공급국 다변화를 위한 입찰규격,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체계 개선방안 검토 ◦ 노르웨이·영국의 저온 유통, 자동화 가공 및 품질관리 사례를 활용한 국내 유통·가공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북대서양 자원 변동과 국제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중장기 수급 안정화 및 물가관리 정책 연구 □ 국제 협력 및 후속 추진 ◦ 노르웨이·페로제도·영국 주요 정부기관 및 기업과 생산·가격·쿼터 정보의 정례적 정보교류 체계 구축 ◦ 페로제도 정부와 협력의향서(LOI) 또는 업무협력(MOU) 체결 가능성 지속 협의 ◦ 주요 공급업체와 생산·선적·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국내 수급전망 및 정책 대응에 활용 ◦ 부산국제수산 EXPO 등 국제행사를 활용한 후속 교류 및 국내 초청 세미나 추진 검토
참고 등 특이사항	◦ 본 출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시에 따라 최근 국내 고등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고등어 물가안정 및 정부비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직매입 물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노르웨이, 페로제도, 영국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의 정부기관 및 수산기업을 방문하여 고등어 생산·가공·수출 구조, 수급 현황, 수출 여건 및 거래 방식 등을 조사하였음 ◦ 현지 정부기관 및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비축용 고등어 직매입 추진 가능성,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방안 및 국가 간 수급안정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출장 중 구축한 기관·기업 관계자 네트워크는 향후 정부비축사업 고도화, 수입선 다변화 및 주요 수산물 수급안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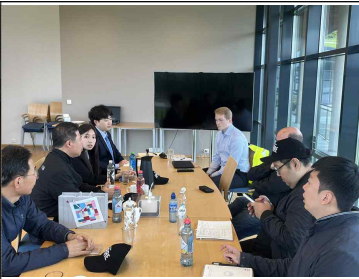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 ①	(7/7, 오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 면담
수행결과	□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 동향 및 양국 수산 협력 방안 협의 ○ 면담자: Even Tronstad Sagebakken 통상산업수산부 차관 외 2인 ○ 기관 개요 및 역할 -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는 수산정책·자원관리 및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 어업 쿼터 배분·조업 규제·수출 진흥 등을 관장함 - 북동대서양 연안국(Coastal States) 간 고등어 쿼터 협상의 핵심 당사자로, ICES(국제해양탐사위원회) 등 과학기관에 자원평가를 요청하고 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주도함 ○ 양국 협력 관계 및 고등어의 전략적 중요성 - 2년 전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수산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연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공급·무역과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측은 고등어가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 수요가 큰 대중성 어종으로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핵심 관리품목이며, 국내 중·대형어 공급 감소로 노르웨이산 의존도와 북대서양 자원 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함 ○ 북대서양 고등어 자원 및 쿼터 동향 - 노르웨이·영국·아이슬란드·페로제도 간 2026년 고등어 TAC 및 쿼터 배분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EU와 그린란드는 별도의 할당량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2026년 TAC는 299,010톤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연안국 어업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ICES 권고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함 - 자원 감소 원인으로 신규 가입량 감소, 참치 등 포식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사망률 상승, 연안국 간 합의 부재로 인한 과도한 어획 누적 등이 제시됨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조업정보 확보와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진 점도 자원평가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기 관리방향 및 향후 전망 - 연안국들은 ICES와 공동으로 자원 재건을 포함한 장기 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쿼터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예측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단기적으로는 쿼터 감축에 따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나, 다자간 조업 통제와 자원 재건조치가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북대서양 대구 등 다른 주요 어종도 쿼터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북대서양 수산자원 전반이 기후변화와 자원 이동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한·노르웨이 간 자원·쿼터 관련 정보교류와 수산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기로 함 - 9월 말경 확정 예정인 차년도 TAC 및 국가별 쿼터 결과를 확보하여 국내 수급전망과 물가 예측에 반영할 계획임 - 담당자 지정과 정보 제공 주기 등 정례적 정보교환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협의 예정임 ○ 주요 시사점 - 북대서양 고등어 공급은 자원 감소, 연안국 간 쿼터 갈등, 러시아 조업정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단기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국내 수급전망에는 단기 공급 감소를 전제로 한 보수적 시나리오와 장기 자원 회복 시나리오를 병행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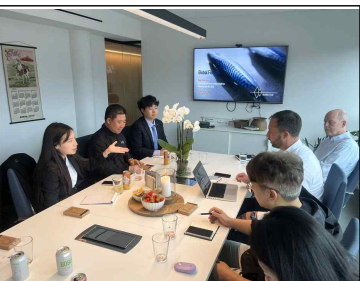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②	(7/7, 오후) Pelagia 본사(노르웨이 베르겐) 방문 및 면담
수행결과	□ 노르웨이산 고등어 품질관리 체계 및 대(對)한국 수출 구조·순환경제 사업 조사 ◦ 면담자: Rolf Kristian Våge 부사장, Terje Løseth 수석세일즈매니저 ◦ 기관 개요 및 역할 - Pelagia는 노르웨이 대표 펠라직 수산물 가공기업으로, 고등어·청어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가공·냉동시설을 운영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시장에 원료 및 가공품을 공급함 - 원물 가공뿐 아니라 어유·해양단백질 생산, 양식 부산물 자원화를 추진하는 순환경제 기업임 ◦ 품질관리 및 생산체계 - 어획 시기와 어군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지방 함량·신선도 등을 관리하고, 시장별 요구 규격에 맞춰 제품을 선별·출하함 - 양륙 직후 자동화 가공라인과 급속냉동 설비를 연계하여 선도 저하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냉동창고를 활용해 품질 균일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함 - 양륙부터 냉동·보관까지의 공정 자동화가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프리미엄 품질 유지와 대량 공급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對)한국 수출 구조 -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등어 소비가 많은 국가로, Pelagia의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냉동 고등어 수입에서 노르웨이산 비중이 높은 만큼, 노르웨이산 공급 여건과 수입단가 변화가 국내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한국 시장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균일성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 장기 거래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공급계약 및 글로벌 수급 여건 - 글로벌 원료가격 상승과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Pelagia와 국내 고등어 수입업체 간 일부 고등어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 자원량 감소와 국제 어획쿼터 축소가 유럽 전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료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 시장은 원가 상승에도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노르웨이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부산물 자원화 및 순환경제 사업 - 펠렛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뼈·내장 등을 회수하여 어유와 해양단백질 원료로 활용하는 Zero Waste 체계를 운영함 - 추출한 어유와 단백질을 사료·식품 등 산업용 원료로 가공하고, 연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잔여 사료도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고 있음 - 부산물 회수부터 최종 제품 공급까지 물류를 통합 관리하며, 원물 가공과 부산물 자원화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를 구축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계약 물량의 선적 일정과 공급조건을 확인하여 국내 수급전망에 반영할 계획임 - 부산물 자원화 및 순환경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 Pelagia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생산·가격·선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시사점 - 민간 공급계약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부산물 전량 회수와 고부가가치화 모델은 국내 수산부산물 자원화 정책과 양식장 환경관리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③	(7/8, 7/10) Sperre 본사 및 가공공장(노르웨이 올레순) 방문 및 면담
수행결과	□ 노르웨이 고등어 가공업체 생산 역량 및 대(對)한국 공급전략 조사 ○ 면담자: Kjetil Sperre 커머셜디렉터, Håvard Ulvestad Sperre 수출매니저 ○ 면담 및 현장 시찰 개요 - 기업 브리핑, 가공공장 현장 시찰, 고등어 처리·필렛 가공공정 영상 설명 및 대(對)한국 공급 안정화 정책 면담 순으로 진행함 - 방문 시점이 고등어 성어기 개시 이전이어서 생산라인의 실제 가동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생산설비 배치와 자동화·냉동·포장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함 ○ 기관 개요 및 생산체계 - Sperre는 1937년 설립된 가족기업으로, 초기 농업·어업 병행에서 수산가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창업가문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음 - 고등어·청어 등 펠라직 어종과 염장건조 대구, 냉수성 새우 등을 가공·수출하며, 올레순 권역을 중심으로 여러 생산거점을 운영함 - 계절성이 다른 대구·펠라직·새우 품목을 조합하여 연중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 ○ 가공공장 현장 시찰 결과 - 원료 반입, 크기별 선별, 가공, 냉동, 포장 및 보관 등 생산시설 배치와 운영체계를 확인함 - 주요 공정에 자동화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어기에는 대량 원료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인력은 단순 반복 작업보다 설비 운전, 공정 점검,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구조라고 설명함 - 주요 조업해역과 가공공장의 거리가 가까운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원료 운송시간을 줄이고, 냉수 처리와 냉동공정을 연계해 선도 저하를 최소화함 - 시장별 요구 규격에 맞춰 원료와 제품을 분류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사료와 산업용 원료로 활용함 ○ 고등어 생산 및 필렛 가공전략 - 2024년은 고등어 조업과 가공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로 설명하였으나, 2026년에는 자원 감소와 쿼터 감축으로 원료 확보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밝힘 - 몰데 지역의 고등어 필렛 전문 가공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한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Sperre는 통고등어 중심에서 손질과 조리가 편리한 필렛으로 수출품을 차별화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가정·외식용 수요를 고려하여 제품규격과 가공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음 ○ 대(對)한국 공급 안정화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업체측은 한국을 중요하고 우호적인 시장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향 물량 우선 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음 - 성어기 개시 이후 한국향 배정물량과 필렛 공급계획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필렛 제품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규격·가격조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 자동화·저온처리·부산물 활용체계를 국내 가공시설 개선 사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시사점 - 쿼터 감축은 대한국 수출물량 감소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단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필렛 가공 확대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시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화와 저온처리 중심의 생산체계는 국내 고등어 가공공정의 선도관리와 인력 절감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④	(7/9) Global Fish(노르웨이 올레순) 현장 방문 및 면담
수행결과	□ 펠라직 가공업체 생산 역량 및 고등어 자원·가격·대(對)한국 공급전략 조사 ◦ 면담자: Per Arne Fagervoll Meek CCO, Geir Robin Hoddevik CEO ◦ 기관 개요 및 생산체계 - Global Fish는 Nergård 그룹 산하의 펠라직 전문 가공업체로, 고등어·청어·열빙어 등을 생산하며 2개 생산거점을 운영함 - 성수기에는 하루 약 2,000톤을 처리하고 고등어 생산라인은 시간당 약 50~60톤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주요 조업해역과 입지, 자동화 생산라인, 냉수 처리공정을 바탕으로 원료 선도와 품질을 관리하며, 부산물은 사료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운영함 ◦ 제품 및 수출시장 - 통고등어, 청어 나비필렛, 열빙어와 열빙어 알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함 - 한국은 Global Fish의 주요 고등어 수출시장으로, 최근 4~5년간 연간 약 3만 톤 규모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청어와 재가공 물량의 주요 최종 소비시장이고, 청어알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함 ◦ 자원평가 및 쿼터 동향 - 신규 가입량 감소와 대형어 중심 어획으로 자원 재생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고등어는 부레가 없어 음향조사만으로 자원량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함 - 표지방류·재포획 조사와 어획물의 크기·연령구성 등을 종합하여 자원상태를 평가함 - ICES 권고치보다 높은 299,010톤으로 TAC가 합의되었으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원료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 조업실태와 실제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자원예측과 국제 인증 유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용·환율 및 거래관리 - 환율, 어선 신조가격 상승, 척당 물량 감소로 조업·가공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함 - 선상에서 확보한 품질정보를 바탕으로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어획 시점부터 어종·크기·중량 등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함 - 관련 데이터는 자원관리와 국가 간 쿼터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쿼터 축소로 시즌이 짧아지고 가동률이 낮아질 경우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어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대(對)한국 공급전략 - 업체측은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밝힘 - 다만 쿼터 감소와 원료비 상승으로 한국향 물량 확대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한국향 계약물량의 확정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항정보와 시장동향 자료를 우리측에 공유하기로 함 - 정례적인 정보교류 채널을 통해 가격·생산·선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시사점 - 자원 감소, 러시아 조업 불확실성, 환율 및 선박 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현지 사항정보를 정례적으로 확보하여 국내 수급계획과 소비자물가 전망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⑤	(7/11, 오전) TorvehallerneKBH, 수산물 소매 판매현황 및 상품 구성 조사
수행결과	□ 북유럽 수산물 소매유통 형태 및 가공품 소비 실태 조사 ◦ 조사대상: Torvehallerne KBH 코펜하겐 상설 식품시장 ◦ 시장 개요 - 코펜하겐 중심부 Israels Plads에 위치한 상설 식품시장으로, 2011년 9월 개장함 - 유리와 철골 구조의 2개 실내 홀과 옥외 판매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00m² 규모에 60여 개의 상설 점포가 입점함 - 신선 수산물, 육류, 채소, 치즈, 베이커리, 조리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취급하는 도심형 복합 식품시장임 - 과거 중앙 청과 도매시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소매·외식·관광 기능이 결합된 식품시장으로 재생한 사례임 - 도매 거래보다는 일반 소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미식 기능이 중심이며, 일부 수산물 점포는 시내 외식업체에도 원료를 공급하고 있음 - Nørreport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고, 2개 홀은 신선 원물 판매와 조리·즉석식품 판매 기능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됨 ◦ 수산물 취급 및 상품 구성 - 신선어패류와 함께 훈제·염장·조리 가공품 및 즉석 취식용 제품을 동일 점포에서 병행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 굴·새우 등 즉석 취식이 가능한 품목과 소분·소포장 제품의 비중이 높아 1~2인 가구와 소량·즉시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 구성이 두드러짐 - 고등어는 통마리 원물보다 훈제·필렛 등 손질과 조리가 일부 완료된 형태로 판매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생선 원물보다 조리 편의성과 보관성을 높인 가공품의 비중이 높아 소비자의 간편식 수요가 상품 구성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 어획방식, 유기·지속가능성 인증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점포별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하고 있음 - 수산물 판매와 즉석 조리·취식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단순 원물 판매장보다 체류형 소비 공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시사점 - 유럽 소매시장에서는 손질·소분·조리 편의성을 갖춘 수산물 제품의 비중이 높아, 국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필렛·훈제·간편조리 제품 등 상품 형태의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선 원물 판매와 즉석 조리·외식 기능을 결합한 운영방식은 국내 전통시장과 수산물 판매장의 소비자 접근성 및 체류시간을 높이는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도심 내 유희부지를 식품시장으로 재생하고 소매·외식·관광 기능을 결합한 사례로, 국내 수산물 판매장 현대화 및 지역 관광 연계 정책에 활용가능함 - 원산지, 어획방식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국내 수산물 표시제도와 판매단계 정보 제공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 단, Torvehallerne KBH는 소매·미식 중심 시장으로 도매 거래나 가격 형성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산지·도매 단계의 유통구조와 가격 전달체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업무 ⑥	(7/11, 오후)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코펜하겐) 간담회
수행결과	□ 노르웨이 방문 결과 공유 및 페로제도 협력 방안 협의 ◦ 면담자: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 이동렬 대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기관 개요 및 역할 - 주덴마크 대한민국대사관은 덴마크와 페로제도·그린란드 등의 외교·통상 협력 및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함 - 페로제도에는 우리나라 상주 공관이 없어 주덴마크 대사관이 관련 외교 협의를 담당하며, 현지 명예영사 등 상시 조력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노르웨이 방문 결과 공유 - 노르웨이와 한국 민간업체 간 2,000톤 규모의 고등어 공급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함. 또한 노르웨이 수출업체는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움직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정부기관은 자원관리와 쿼터 협상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을 공유함 - 고등어 관세 인하 문제는 통상협상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별 공급협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유함 - 쿼터 감축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일본·중국·베트남 등 여러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 한국향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페로제도 동향 및 협력 가능성 - 페로제도는 기존 수출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개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페로제도 관계 인사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수산물 홍보와 국내 유통업체 접촉을 추진한 사례를 설명받음 - 대사관은 향후 페로제도 방문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수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며, 페로제도 내 상주 공관과 명예영사 등 현지 조력기반이 부족한 점도 향후 협력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됨 ◦ 제도적 협력방안 - 정식 FTA는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만큼 수산 분야 MOU, 협력의향서, 민간 유통망 구축 등 단계적 협력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페로산 고등어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통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초기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적용 여부와 물량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국내 수입·유통업체 발굴, 시험물량 도입, 할당관세 활용 가능성 검토를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협력경로로 제시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페로제도 정부 및 업체 면담 결과를 대사관과 공유하기로 함 - 대사관은 향후 페로제도 고위급 면담 등을 계기로 후속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 수산 협력과 재외국민 보호를 지원할 현지 연락망 및 명예영사 등 제도적 기반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페로제도 협력은 국내 유통업체 발굴, 시험물량 도입, 할당관세 활용 가능성 검토를 연계한 단계적 방식이 현실적임 - 페로산의 국내 시장 진입은 노르웨이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기존 공급국과의 가격·물량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의미가 있음
업무 ⑦	(7/13, 오전) 페로제도 외무수산부 및 산업회관(House of Industry) 방문 및 면담
수행결과	□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 협력 기반 구축 및 관세·할당관세 제도 협의 ◦ 면담자: Herálvur Joensen 사무차관, Hákon Djurhuus 대외통상국장, Rósa Heinesen 참서관 ◦ 기관 개요 및 역할 - 외무수산부는 페로제도 자치정부의 대외통상과 수산정책을 총괄하며 연안국 쿼터 협상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통상협력을 담당함

- House of Industry(산업부)는 페로제도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이며, 수산업은 페로제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최근 아시아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관세제도 및 페로측 요청
 - 한-EFTA FTA상 노르웨이산 고등어에는 제한적인 TRQ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별도로 원산지 불문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함
 - 한-EFTA FTA상 TRQ와 국내 할당관세가 영문으로 유사하게 표현되어 제도 이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한국측에서 설명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 페로측은 노르웨이에 적용되는 TRQ와 유사한 제도적 지원 가능성을 문의하고, 페로산에 대한 별도 물량 배정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함
 - 페로제도는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한-EFTA 협정 적용 여부와 별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한국 시장 진입전략
 - 페로산은 노르웨이산에 비해 국내 인지도가 낮아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시식·홍보·유통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설명함
 - 노르웨이산이 국내 시장에 정착한 배경에는 장기간의 홍보와 유통업계 협력이 있었던 만큼 페로산도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홈쇼핑 수산물 판촉과 관광 홍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함
 - 가격 경쟁력 있는 시험물량을 우선 도입하여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정보교류 및 협력기반
 - KMI 수산업관측 월보를 소개하고, 페로측의 생산량·생산자가격 등 기초정보를 정례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 향후 공급 가능 물량과 가격, 생산시기 등을 정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연락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한-EFTA FTA상 TRQ와 국내 할당관세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페로측에 제공하기로 함
 - MOU 또는 협력의향서 체결 가능성과 페로제도의 한-EFTA 협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생산량·가격 등 기초 정보의 제공체계와 홈쇼핑·관광 홍보 연계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페로제도는 한국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유력한 대체 공급 후보지역으로,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관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국내 수입·유통업체 연결, 소비자 인지도 제고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페로산 도입은 실제 물량 확대뿐 아니라 기존 공급국과의 가격·물량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페로제도 산업계 전반의 대한민국 협력 수요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협의

◦ 면담자: 페로산업회관 Niels Winther CEO

◦ 기관 개요 및 역할

- House of Industry(Vinnuhúsið)는 페로제도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수산·해운·물류·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대외 통상협력의 민간 창구 역할을 수행함
- 개별 기업 단위 접촉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 전반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정부 채널과 병행하여 접촉할 실익이 있는 기관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페로제도 수산업은 국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최근 대러시아 수출 여건 악화 이후 아시아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산업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페로제도 산업구조 및 대외 통상 여건 - 수산업(펠라직 어업·가공 및 연어 양식)이 산업의 중심이며, 여기에 해운·물류와 최근 성장 중인 관광 부문이 결합된 구조임 -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특정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일 시장의 여건 변화가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이 있음 - 페로제도는 덴마크 자치령이나 EU 회원국이 아니고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통상협정을 자치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함 ○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 및 협력 수요 - 산업계 차원에서 한국 시장을 유망 신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간 협의와 별도로 기업 간 직접 거래관계 구축에 관심을 표명함 - 우리측은 한국의 고등어 수급 여건과 할당관세 운영 구조를 설명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체와의 실질적 접촉이 시장 진입의 선결 조건임을 전달함 - 수산물 외에 관광·해운 등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교류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부산 국제수산물EXPO 등 국내 국제행사를 활용한 참가·홍보 방안을 제안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페로제도 수산기업과 국내 수입·유통업체 간 매칭을 지원할 민간 연락채널 구축 가능성을 협의함 - 국제행사 참가 및 방한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 예정 - 산업단체 차원에서 보유한 생산·수출 통계 자료의 공유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정부 채널만으로는 실제 거래 성사까지 연결되기 어려우므로,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 간 매칭 경로를 병행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페로제도 산업계의 시장 개척 의지가 정부의 협력 의사와 일치하고 있어, 민관 양측에서 동시에 접근할 경우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여건임
업무 ⑧	(7/13, 오후) 페로제도 보건에너지부 장관 면담
수행결과	□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 협력 및 페로산의 한국시장 진입 여건 협의 ○ 면담자: Eyðdis Hartmann Niclasen 보건에너지부 장관 외 ○ 면담 개요 및 기관 역할 - 만찬을 겸한 면담 형식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형화된 의제 없이 자유 대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보건에너지부는 보건·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이나, 동 장관은 금년 방한하여 부산에서 페로산 수산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한 바 있어 대한국 수산 협력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 고등어 수급 현황 공유 - 2025년 국내 생산량은 약 20만 톤이나 식용 수요가 집중되는 300g 이상 중·대형어 비중은 약 5%에 불과하여 실제 식용 가능 물량은 1만~1.5만 톤 수준임을 설명함 - 부족분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하며 노르웨이산 수입량은 연간 약 4~5만 톤으로, 한국은 생산·수출·수입 세 부문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삼중고 상황임을 전달함 - 일본 역시 고등어 부족을 겪고 있어 아시아 전반이 공급 부족 국면이며, 노르웨이의 주된 수출시장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함 ○ 관세제도 설명 및 페로측 관심사항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한-EFTA FTA) 고등어는 국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연간 500톤 규모의 TRQ만 허용되어 왔으며, FTA를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음을 설명함
- (할당관세) 2025년 수급 불안 심화에 따라 원산지를 불문하고 연간 2.5만 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금년 말까지 시행 중이며, 이러한 규모의 조치는 사실상 금년이 처음임을 설명함
- (용어 혼선) 한-EFTA FTA상의 TRQ와 국내 할당관세가 영문상 모두 tariff-rate quota로 표현되어 상호 이해에 혼선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제도상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조정관세, 인하하는 것은 할당관세로 구분된다는 점을 별도 자료로 정리하여 송부하기로 함
- (페로측 요청) 노르웨이에 부여된 500톤과 같이 페로산에 대해서도 별도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언급하고, 해당 규모가 협정문상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우리측 평가) 전 세계적 고등어 생산 부족이 근본 원인이므로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 한국 시장 진입전략에 대한 협의
 - 한국 소비자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소비 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어 있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페로산은 아직 생소한 브랜드임을 설명함
 - 노르웨이산의 한국시장 정착 배경에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페로산도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인지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현재 국내 수입업체들은 국제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구매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이며, 고가 지속 시 국내 고등어 시장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을 공유함
 - 페로측이 수산식품뿐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홈쇼핑 수산물 판촉과 관광 홍보 방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양측이 긍정적 관심을 표명함
- 정보교류 협력
 - KMI가 매월 생산량·가격·수출입 동향을 수록한 수산업관측 월보를 발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해외 정보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므로 페로측의 생산량·생산자가격 등 기초정보의 정례적 제공이 중요함을 설명함
 - 페로측도 한국 시장동향과 관세제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데 관심을 표명하여, 실무 연락망 구축 필요성에 상호 공감함
- 페로제도 수산업·사회경제 일반(참고)
 - 수산업이 페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주력 수출 품목은 연어와 고등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넙치류(터봇), 할리벳, 흑가자미 등이 어획됨
 - 고등어 쿼터 감소 추세와 배경과 사유, 연어 양식 및 고등어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운영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 확인
 - 우리측은 한국의 어촌 인구 감소와 어촌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연어 양식 산업의 발전이 지역 어촌 공동체에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노동 여건은 주당 40시간이 기준이고 최대 52시간이며 증빙이 있을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시급은 130크로네 내외로 한국 대비 약 3배 수준이나 물가도 함께 높은 편임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주택가격 등 사회 일반에 관한 문답도 이루어짐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한-EFTA FTA상 TRQ와 국내 할당관세의 차이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페로측에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 홈쇼핑 판촉과 관광 홍보를 연계한 방송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가능성을 국내에서 검토하기로 함
 - KMI 월보의 해외 정보란 확대와 페로측 기초정보 제공 채널을 지속 협의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페로제도는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고 대한국 수산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 간 협력의 정치적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페로측의 핵심 관심은 일관되게 국가별 물량 배정에 있으므로, 현행 할당관세가 원산지 불문 총량 방식이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대안 제시가 향후 협의의 관건임
 - 가격 요인만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려우므로 시식·홍보·유통망 구축을 병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⑨	(7/13, 오후) 페로제도 현지 언론(Local.fo) 인터뷰
수행결과	□ 한-페로 수산 협력 방향에 관한 현지 언론 대응 ○ 취재매체 및 취재기자: Local.fo(https://local.fo/), Búi Tyril - 페로제도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로, 수산·통상 관련 기사는 자매지 Faroe Business Report(https://faroebusinessreport.com)에도 함께 게재됨 ○ 인터뷰 개요 - 페로제도 정부 및 수산기업 면담 일정과 연계하여 현지 언론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페로제도는 수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최근 對러시아 수출 감소 이후 아시아 시장 진출과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 주요 설명 내용 - 금번 방문은 국내 고등어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 방안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임을 설명하고, 한국은 고등어 소비 규모가 큰 반면 식용 규격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소개 - 고등어를 중심으로 연어 등 다양한 수산물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정부·기업 간 정보교류와 거래 기반 확대를 통해 중장기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전달함 - 관세, 물량 배정 등 제도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 ○ 보도 결과 - 2026.7.14. Local.fo에 "South Korea eyes Faroese mackerel"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Faroe Business Report에도 동일 내용이 소개됨 - 기사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협중앙회 및 민간업체로 구성된 대표단의 페로제도 방문과 외무수산부 면담, 주요 수산기업 방문 내용이 보도됨 - 양측의 협력 확대 의지와 금번 방문이 향후 교역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현지 관계자의 평가가 함께 소개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별첨 2]에 수록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향후 Local.fo 등 현지 언론과의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수산시장 및 협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검토 ○ 주요 시사점 - 페로에서는 금번 방문을 한국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 - 제도적 확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히 관리하되,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력 등 실행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 메시지를 구성할 필요 - 영문 언론 보도는 페로제도뿐 아니라 북대서양 주요 공급국에도 전달되는 만큼, 향후 국제 협력과 공급망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 ⑩	(7/13, 오후) Pelagos(페로제도) 방문 및 면담
수행결과	□ 페로제도 펠라직 가공역량 및 대(對)한국 고등어 공급 가능성 조사 ○ 면담자: Bogi P. Nielsen CEO, Frióin Ziskason COO, Pól í Skorini 세일즈디렉터, Anita Z. Johannesen 영업물류 매니저 ○ 기관 개요 및 생산체계 - Pelagos는 페로제도를 대표하는 펠라직 전문 가공기업으로, 고등어·청어·블루화이팅 등을 원료로 냉동 제품을 생산함 - 가공장이 항만에 인접하여 접안 선박에서 원어를 직접 양륙·처리하는 일관 체계를 운영하며, 급속동결 설비와 자체 냉동창고를 보유함 - 주요 조업해역과 가공장의 거리가 가까워 원료 운송시간이 짧고, 이는 선도 유지 측면에서 구조적 이점으로 작용함 ○ 생산·품질관리 및 규격 - 어획 시기와 어군 특성에 따라 크기·지방함량을 관리하고 시장별 요구 규격에 맞추어 선별·출하하는 체계를 운영함 - 한국 시장이 요구하는 300g 이상 중·대형 규격의 공급 가능성과 포장 단위(20kg 등) 대응 여력을 확인함 -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어분·어유 등 사료 및 산업용 원료로 활용됨 ○ 대(對)한국 공급 여건 협의 - 우리측은 국내 고등어 수급 및 물가 상황과 할당관세 운영 구조를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공급 관심과 가능 물량을 문의함 - 업체측은 한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러시아 수출 여건 변화 이후 아시아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커졌음을 설명함 - 다만 노르웨이산 대비 국내 인지도와 유통망이 취약하여 초기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관세 부담이 가격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함 - 우리측은 국내 수입·유통업체와의 직접 거래관계 구축과 시험물량 도입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임을 안내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공급 가능 물량·규격·가격 조건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함 - 국내 수입·유통업체와의 접촉을 지원하고 시험물량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함 - 생산·선적 동향에 관한 정례적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페로제도 펠라직 가공업체는 규격·품질 측면에서 국내 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르웨이 편중 구조를 완화할 대체 공급원으로 검토 가치가 있음 - 실제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관세 여건뿐 아니라 국내 유통망 확보와 초기 인지도 제고가 병행되어야 함
	
업무 ⑪	(7/13) Bakkafrost(페로제도) 방문 및 면담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페로제도 연어 양식·가공 산업 현황 및 대(對)한국 수산물 협력 가능성 조사 ◦ 면담자: Poul Andrias Jacobsen 마케팅총괄 ◦ 기관 개요 및 역할 - Bakkafrøst는 페로제도 최대 연어 양식·가공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종묘·사료·양식·가공·판매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계열 사료회사를 통해 펠라직 어종을 원료로 하는 어분·어유를 생산하고 있어, 고등어 등 펠라직 자원 동향이 연어 양식 부문의 사료 원가와도 연결되는 구조임 - 스코틀랜드 연어 사업을 인수하여 북대서양 권역으로 사업 기반을 확장한 바 있음 ◦ 생산·품질관리 체계 - 해역 환경과 어체 상태를 관리하는 양식 단계부터 가공·포장·물류까지 통합 관리하여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운영함 - 신선 연어의 항공 수출과 가공품 생산을 병행하며, 시장별 요구 규격에 맞추어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음 ◦ 대(對)한국 협력 가능성 - 한국은 연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시장으로, 업체측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우리측은 국내 연어 수입이 노르웨이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공급원 다변화 관점에서 페로산 연어의 국내 공급 여건을 문의함 - 고등어 등 펠라직 부문과 연어 부문을 포괄하는 수산 분야 전반의 협력 가능성을 함께 점검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연어와 펠라직 부문의 대한국 공급 가능 물량과 유통 경로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함 - 페로제도와와의 협력 MOU 또는 협력의향서 논의 시 연어를 포함한 수산물 전반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페로제도와와의 협력을 고등어에 한정하지 않고 연어 등 주요 품목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경우, 협력의 지속성과 상호 유인이 높아질 수 있음 -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료·양식·가공 통합관리 모델은 국내 양식산업의 원가관리 및 품질 관리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업무 ⑫	(7/13, 오후) Varðin Pelagic(페로제도) 면담
수행결과	□ 대(對)한국 수출 시 관세 부담 및 할당관세 운용의 예측가능성 협의 ◦ 면담자: Eyðin Djurhuus 세일즈매니저(아프리카·아시아 담당) ◦ 기관 개요 및 역할 - Varðin Pelagic은 페로제도의 주요 펠라직 가공업체로 고등어·청어 등을 생산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영업조직을 운영함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를 주요 시장 진입 애로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관세 부담 및 국가별 배정 요청 - Varðin측은 기본관세가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임을 반복 강조하고, 국가별로 할당관세 물량을 사전 배정(country allocation)하는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문의함 - 5,000불 상당 거래 시 약 500불의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들어 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우리측은 정부가 총물량과 세율만 설정하고, 실제 물량은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자와 계약한 후 추천·통관 절차를 거쳐 배정되는 구조임을 설명함
- 특정 국가에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방식은 현행 제도와 부합하기 어려우며, 국내 수입·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적용 가능 물량 및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안내함
- 선적기간 및 물량 소진 리스크
 - 페로제도 선적 후 국내 입항까지 6~8주가 소요되어, 항해 기간 중 할당관세 물량이 소진될 경우 후속 도착분이 기본관세를 적용받게 될 우려를 제기함
 - 우리측은 통상 선적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10% 수준)이 선지급되므로 선 이후의 가격 변동 위험은 제한적임을 설명함
 - 잔여 물량 소진 위험은 국내 수입업체가 계약 물량과 통관시기를 조정하여 관리할 사항이며, 노르웨이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을 안내함
 - 국내 대형 수요처가 관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인 페로측도 관세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노르웨이와의 경쟁 여건
 - 노르웨이산은 한국 내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어, 페로산은 관세 부담까지 추가될 경우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노르웨이산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5.5불에서 6.0불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페로측은 5.7불 수준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관세 적용 여부가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설명함
 - 품질·마케팅 경쟁력의 상대적 열위를 감안할 때 관세가 지속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함
- 대(對)한국 시장 진입전략
 - 페로산은 가격만으로 노르웨이산과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국내 수입업체와의 장기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공급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초기에는 시험물량을 통해 품질과 규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적절함
 - 한국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관행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정보교류와 안정적인 관세 적용 가능성 확보가 핵심 조건으로 제시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할당관세 구조와 신청·통관절차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할당관세 결정·발표 일정의 개략적 안내 방안과, 관련 문의에 대응할 상시 연락창구를 검토하기로 함
 - 언급된 국내 거래기업, 중국 트롤 어업 동향 및 판촉비용 분담 관련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주요 시사점
 - 공급국이 요구하는 국가별 사전 배정과 현행 할당관세 구조에는 차이가 있어, 제도의 작동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임
 - (예측가능성) 페로·노르웨이 등 주요 공급국이 공통적으로 할당관세 시행 여부와 시기의 불확실성을 최대 애로로 제기하고 있어, 결정·발표 일정에 대한 개략적 안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접근성) 공급국이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영문 안내 등 공개 정보채널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급 안정) 관세 부담 여부가 공급국별 대한국 수출 유인에 직접 작용하는 만큼, 할당관세 물량 설계 시 공급선 다변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업무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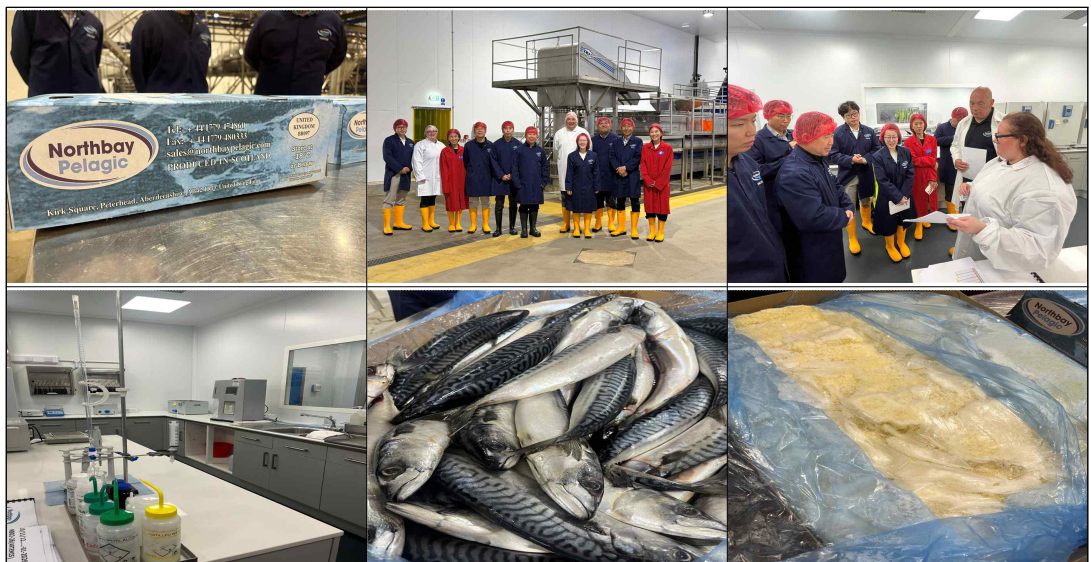
(7/14 오후, 7/15 오후) Northbay Pelagic (영국 에버딘) 방문 및 현장 시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영국 스코틀랜드산 고등어 공급 여건과 가공·품질관리 및 대(對)한국 수출제도 조사 ◦ 면담자: Helena Bedic 품질매니저, Scott McKenzie 관리자, Matthew Donaldson 부팀장 ◦ 면담 및 현장 시찰 개요 - 사무동 기업 브리핑, 원료 하역·필렛·선별·포장·IQF 냉동·저장 공정 견학, 원료 품질검사 시연, 품질관리실 견학 및 수출제도 협의 순으로 진행함 - 실제 생산·품질관리 공정을 확인하고 스코틀랜드산 고등어의 규격·품질·공급 가능성과 국내 도입 조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기관 개요 및 공급 여건 - Northbay Pelagic은 피터헤드항의 펠라직 전문 가공업체로, 접안 선박에서 원어를 펌프로 직접 양륙하여 필렛·H&G·라운드 제품을 생산함 - 생산·포장라인과 IQF 급속동결 설비, 자체 냉동창고 및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운영함 - 영국도 TAC 감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2026년 고등어·청어 70% 양륙요건이 스코틀랜드 가공업체의 원료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 취급 규격은 300~500g급으로 국내 식용 중·대형어 수요와 대체로 부합함 ◦ 가공·냉동 및 품질관리 - 원어는 선박에서 펌프로 양륙하며, 부두와 공장 반입단계에서 이중계량하여 반입량을 관리함. 선박·어획해역·생산로트·출하정보를 관리하고, 표지 방류된 개체를 식별·회수하여 자원조사에 활용함 - 자동 필렛·선별라인과 IQF 설비를 운영하며, 개체동결 후 20kg 벌크박스로 포장하여 분리·해동 편의성을 높임 - 품질관리실에서는 규격, 외관, 멍, 잔존 뼈, 이물, 해동감량 등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로트별 보고서를 작성함 - 선상 RSW 보관부터 펌프 양륙, 급속동결, 저온보관까지의 저온 연속성이 품질 유지의 핵심으로 확인됨 ◦ 원료 품질검사 및 위생관리 - 300~500g급 고등어를 대상으로 안구, 아가미, 외관, 복강막, 멍, 이물 등을 관능·절개 방식으로 확인함 - 포장박스의 선박명과 QR코드를 통해 생산·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체 간 부착이 적고 외관과 육질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 작업장 내 이취가 적었으며, 높은 원료 선도,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세척과 부산물 관리 등에 따른 결과임 - 국내도 양륙 이후 위판·운송·가공 과정의 외기 노출을 줄이고 저온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출함 ◦ 양륙요건 및 원산지 - 2026년 고등어와 청어에 적용되는 70% 양륙요건은 EU의 폐기금지형 의무양륙제도가 아니라 어선허가의 경제적 연계조건에 따른 어종별 강화조치임 - 스코틀랜드 항만 양륙 확대는 가공·냉동·물류 등 지역 연관산업에 긍정적이거나, 실제 원료 반입량은 어획실적·계약·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산물 원산지는 양륙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어획선의 등록·기국·소유와 가공수준 등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대(對)한국 수출 여건 - 냉동 식용 고등어는 수입식품 신고·검사 대상이며 수산생물 검역과는 구분됨 - 해외 생산시설 등록과 위생·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간 위생협력이 체결되더라도 검사 간소화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한·영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품목별 협정세율과 선박·제품의 원산지 기준 및 증명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국산의 국내 진입은 관세뿐 아니라 기존 노르웨이산 중심 유통망, 브랜드 인지도, 규격·생산시기 및 공급실적의 영향을 함께 받음 - 국내 가공·외식업체는 지방함량보다 단단한 육질을 중시함에 따라, 영국산 300~500g급 IQF 제품의 시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부산국제수산물EXPO 참가와 방한 계기 KMI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고, 업체측이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함
- 300~500g급 IQF 고등어의 국내 가공 적합성과 육질·해동감량에 대한 시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한·영 FTA 원산지 기준, 수입검사와 해외 제조업체 등록절차 및 70% 양륙요건의 세부사항을 관계기관에 추가 확인하기로 함
- 영국 업체와 정례적인 이메일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가격·선적 가능 물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시사점
 - 스코틀랜드산 고등어는 규격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노르웨이산 편중 구조를 완화할 대체 공급원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음
 - 선상 RSW, 펌프 직양륙, 이중 계량, 전산 이력관리, IQF 개체동결로 이어지는 공정은 국내 선도·품질관리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양륙부터 위판·운송·가공까지 저온 연속성을 강화하고, IQF 등 개체동결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 ⑭ (7/15, 오전) Denholm Seafoods (영국 에버딘) 방문 및 현장 시찰

- 수행결과
- 고등어 규격·국제 공급망 및 대(對)한국 수출 여건과 가공·냉동 인프라 조사
 - 면담자: Robert Duthie 대표, Nicola Hope 세일즈이그제큐티브
 - 기관 개요 및 생산체계
 - 피터헤드항 부두에 인접한 부어류 전문 가공·냉동 기업으로, 어선에서 원어를 직접 하역하여 가공·냉동·보관하는 일관 체계를 운영함
 - 직원은 약 100명 수준이며, 고급·대형 규격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규격의 원료를 대량 처리·출하하는 생산전략을 운영함
 - 자동화 가공·냉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설비 안정화 이후 공정 효율 향상과 인력·운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고등어 성어기에는 일본 거래처의 품질관리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과 품질관리 과정을 점검함
 - 고등어 규격 및 국제 공급망
 - 원어를 크기별로 구매·선별하며, 시장별 선호 규격에 맞춰 한국·중국·아프리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칠레 등 남미산 태평양 고등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럽 통조림업체가 대체 원료 공급선을 확대하고 있음
 - 유럽 시장은 어획·양륙·가공·유통 단계의 추적가능성과 위생요건을 중시하며, 현 거래조건에서는 한국산이 대체 공급원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함
 - 한국산 고등어가 유럽 통조림 원료로 공급되는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조달 규모와 계약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 대(對)한국 수출 여건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동사의 냉동 고등어는 18kg 포장인 약 80%, 20kg가 약 20%를 차지하며, 한국 측 입찰의 20kg 규격요건이 참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18kg 포장은 원어 크기보다 생산라인과 포장용기의 표준에 따른 것으로, 한국 수요가 확인될 경우 20kg 생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현장 시설 및 품질관리
 - 원어를 펌프와 파이프라인으로 공장으로 직접 이송하고, 계량·선별·생산 데이터를 전산으로 관리함
 - 자동 냉동창고, 플레이트 프리저, 색상코드 기반 자동 포장선별 시스템을 운영하며 원료 투입부터 동결 완료까지 저온상태를 유지함
 - 별도의 품질관리 부서가 히스타민, 이물질, 잔존 뼈와 가공상태 등을 검사함
 - 제품별 보관조건을 반영하여 품질기한을 설정하고, 라벨에 생산연도와 보관기간을 표시하여 관리함
 - 현장 자동화는 대량 처리와 인력 절감에 효과적이거나, 초기 투자비와 설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영국 생산업체는 한국 수요가 확보될 경우 20kg 규격 생산 확대와 한국향 입찰 참여에 유연하게 대응할 의사를 확인함
 - 공급국 다변화를 위해 품질과 총중량이 동일하게 관리되는 범위에서 18kg와 20kg 포장을 병행 허용하고 생산·선적시기 조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격 완화 시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선도·사이즈·추적 기준을 함께 설정해야함
 - 제품규격·생산능력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18kg 병행 허용 등 입찰규격 유연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하기로 함
 - 한국산 고등어의 유럽향 조달 규모와 계약구조를 추가 확인하기로 함
- 주요 시사점
 - 20kg 중심 입찰규격이 스코틀랜드산 물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품질기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규격 유연화가 필요함
 - 한국산의 유럽 수출 경쟁력과 국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어획부터 가공·유통까지 추적성 및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화·저온연속성·실시간 품질관리 방식은 국내 수산물 가공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별첨1] 방문 예정 기관 소개자료

노르웨이 통산산업수산업 홈페이지 (https://www.regjeringen.no/)	Pelagia 홈페이지 (https://www.pelagia.com/)	Sperre 홈페이지 (https://www.sperrefish.com/)
Global Fish 홈페이지 (https://globalfish.no/)	TorvehallerneKBH 홈페이지 (https://torvehallernekbh.dk/)	페로제도 수산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fo/)
페로 수산전문지 local.fo 홈페이지 (https://local.fo/)	Pelagos 홈페이지 (https://www.pelagos.fo/)	Vardin Pelagic 홈페이지 (https://vardin.fo/)
Bakkafrost 홈페이지 (https://www.bakkafrost.com/)	Denholm Seafoods 홈페이지 (https://www.denholm-seafoods.com/)	Northbay Pelagic 홈페이지 (https://www.northbaypelagic.com/)

[별첨 2] 한국 대표단 페로제도 방문 관련 현지 보도

Home > Foreign Trade > South Korea eyes Faroese mackerel

Business Foreign Trade

South Korea eyes Faroese mackerel

By Bui Tyril July 14, 2026 655 0

Share f X reddit Email Print Telegram WhatsApp Link



Outside freezing plant Pelagos, Fuglafjarður, the South Korean delegation, led by Young-jin Yang, Director-General of the Fisheries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fifth from right to left, next to host Hákun J. Djurhuus, Head of Department, External Trade, EU, UK and Asia Relations, of the Faroe Is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isheries. Image credits: Maria Olsen.

A seafood trade delegation from South Korea arrived in the Faroe Islands on Monday on a one-day trip amid efforts to boost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ontext of Faroese exports to South Korea, the main focus appears to be on Atlantic mackerel; other fish species, however, attract interest as well.

Led by Young-jin Yang, Director-General of the Fisheries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the South Koreans paid visits to two key mackerel producers as well as a major salmon farmer.

The event follows on the heel of a Faroese trade visit to South Korea in June. According to a Faroese official, the warm reception received by the Faroese in South Korea along with

MOST RECENT

Thousands gather for sing-along in central Tórshavn to end Ólavseka
July 31, 2026

Newly opened tunnel brings hopes of growth for 38-population Dalur
July 25, 2026

G! Festival: Fantastic Negrito gives tour de force as Clickhaze reunite in style—photos
July 19, 2026

Tórshavn restaurant Ræst featured in 50 Best Discovery
July 17, 2026

Load more >

기사 링크: <https://local.fo/south-korea-eyes-faroese-mackerel/>

FAROE BusinessReport

The International Review of Faroe Islands Industry and Trade

Home Print Edition Main Categories > About > Contact Us

Home > Seafood, Fisheries, Aquaculture > South Korean Seafood Trade Delegation Visits Faroe Islands

International Relations Seafood, Fisheries, Aquaculture

South Korean Seafood Trade Delegation Visits Faroe Islands

By Bui Tyril - July 14, 2026 134 0

f X in reddit Email Print Telegram WhatsApp Link



Outside freezing plant Pelagos, Fuglafjarður, the South Korean delegation, led by Young-jin Yang, Director-General of the Fisheries Policy Bureau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fifth from right to left, next to host Hákun J. Djurhuus, Head of Department, External Trade, EU, UK and Asia Relations, of the Faroe Is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isheries. Image credits: Maria Olsen.

A seafood trade delegation from South Korea arrived in the Faroe Islands on Monday on a one-day trip amid efforts to boost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LOCAL.FO

Thousands gather for sing-along in central Tórshavn to end Ólavseka
July 31, 2026
This year's Ólavseka festivities concluded much in line with the established tradition of recent years—with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

Newly opened tunnel brings hopes of growth for 38-population Dalur
July 25, 2026
People in the southeast of the island Sandoy are celebrating these days following the opening, a week ago, of [...]

G! Festival: Fantastic Negrito gives tour de force as Clickhaze reunite in style—photos
July 19, 2026
This weekend saw the 25th edition of the G! Festival take place at Gøta, in glorious weather, with thousands [...]

Tórshavn restaurant Ræst featured in 50 Best Discovery
July 17, 2026
Faroese restaurant Ræst has been listed in the famed 50 Best Discovery list of the 'World's 50 Best Restaurants' [...]

Discover the rich heritage of the Faroe Islands
July 17, 2026
SPONSORED. Experience the nature, culture, and history of the Faroe Islands by visiting the Faroe Islands National Museum! Admission [...]

기사 링크:

<https://faroebusinessreport.com/seafood-fisheries-aquaculture/south-korean-seafood-trade-delegation-visits-faroe-islands/>

Fara eftir fríhandilsavtalu við Suðurkorea



Mynd: Pelagos

Suðurkoreanar eru farnir at vísa áhuga fyri Føroyum og føroyskum vørum og vísir myndin vitjan av sendinevnd úr Suðurkorea, sum vitjaði Pelagos og Bergfrost í Fuglafirði.

- Vit fara fyrst og fremst eftir eini fríhandilsavtalu millum Føroyar og Suðurkorea.

Tað sigur Niels Winther, stjóri í Vinnuhúsinum, nú suðurkoreanar í seinastuni eru farnir at vísa áhuga fyri Føroyum og føroyskum handilsvørum.

기사 링크:

https://www.vp.fo/news/page?tx_news_pi1%5Bnews%5D=104702&cHash=f4b88cc40ba1cd10aabe57b102c5c2b